

2020년 4월 1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경제 재개 발표 기대 속 상승 전환 일부 기술주, 바이오, 헬스케어 강세 Vs. 금융, 에너지 부진

미 증시 변화 요인: 코로나 이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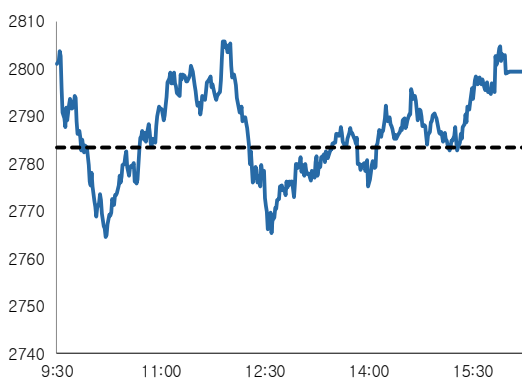
미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혼조 출발. 더불어 국제유가가 여전히 20 달러를 하회함에 따라 에너지 및 금융주가 부진을 주도. 더불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자금 소진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약세도 부담. 그러나 장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의 경제 재개 발표 기대에 힘입어 상승 전환 성공(다우 +0.14%, 나스닥 +1.66, S&P500 +0.58%, 러셀 2000 -0.50%)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24.5만 건으로 발표돼 4주 동안 약 2,200만 건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고용 불안이 이어진 모습. 다만, 경제 섯다운이 먼저 진행 되었던 캘리포니아(92만건→66만건)를 비롯해 미시간(39만건→22만건) 등 대부분의 주에서 감소를 보여 지난 주 대비 137만건 감소. 이는 고용 중인 노동자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실제 금융위기 증가한 고용이 4주 동안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한편, 급격한 고용 불안으로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배정 자금인 3,490억 달러가 소진되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태.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2,500억 달러 증액을 공화당이 거부해 불확실한 상태.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3주 정도 유지할 현금만 보유하고 있어 그 안에 의회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 신용 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 여기에 국제유가가 수요 둔화가 지속되며 20달러를 하회하고 있어 세일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우려 또한 제기된 점도 부담. 이 여파로 에너지, 금융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부진

반면, 트럼프가 이날 경제 재개와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 온라인 기반 기업들의 지속적인 상승과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러한 변화 요인으로 미 증시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를 보였고,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1,857.07	-0.00	홍콩항셱		24,006.45	-0.58
KOSDAQ		623.43	+2.15	영국		5,628.43	+0.55
DOW		23,537.68	+0.14	독일		10,301.54	+0.21
NASDAQ		8,532.36	+1.66	프랑스		4,350.16	-0.08
S&P 500		2,799.55	+0.58	스페인		6,763.40	-1.11
상하이종합		2,819.94	+0.31	그리스		606.75	-0.13
일본		19,290.20	-1.33	이탈리아		16,768.14	+0.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아마존 상승 지속

아마존(+4.36%)은 온라인 판매 증가가 이어지며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월마트(+2.77%), 타겟(+2.88%)와 함께 코스트코(+3.64%)는 품목의 다양화와 온라인 매출 증가 기대로 상승했다. 데이터 서버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로 MS (+3.00%)도 상승했다. 배드뱅크 비온드(+18.02%)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 했다. 유나이티드헬스(+5.95%)는 전일 양호한 실적에 이어 오늘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자 '오바마 헬스케어'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CVS 헬스(+3.30%) 등 여타 헬스케어 업종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소비자들의 재정 스트레스로 신규 자동차 구입 대신 수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이후 GM(-3.65%), 포드(-1.79%)는 하락했으나, 부품 업체인 오 리얼리 오토모티브(+3.90%), 오토존(+4.92%), 어드밴스 오토(+4.95%) 등은 강세를 보였다. 한편, 보잉(-8.04%) 등 항공업종과 TJX(-3.81%) 등 일부 소매 유통업종은 중기 대출 소진 소식으로 하락했다.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신용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코노코필립스(-3.51%) 등 에너지 업종과 JP모건(-3.81%) 등 금융주는 국제유가 20달러 하회 지속 여파로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4.54%	대형 가치주 ETF(IVE)	-0.05%
에너지섹터 ETF(OIH)	-6.96%	중형 가치주 ETF(IWS)	-0.78%
소매업체 ETF(XRT)	-0.27%	소형 가치주 ETF(IWN)	-1.36%
금융섹터 ETF(XLF)	-1.76%	대형 성장주 ETF(VUG)	+1.05%
기술섹터 ETF(XLK)	+1.22%	중형 성장주 ETF(IWP)	+0.9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88%	소형 성장주 ETF(IWO)	+0.16%
인터넷업체 ETF(FDN)	+0.89%	배당주 ETF(DVY)	-0.73%
리츠업체 ETF(XLRE)	-0.62%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9%
주택건설업체 ETF(XHB)	-0.2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9%
바이오섹터 ETF(IBB)	+2.93%	미국 국채 ETF(IEF)	+0.11%
헬스케어 ETF(XLV)	+2.18%	하이일드 ETF(JNK)	-0.07%
곡물 ETF(DBA)	-0.44%	물가연동채 ETF(TIP)	-0.85%
반도체 ETF(SMH)	+2.65%	Long/short ETF(BTAL)	+0.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35.59	-3.97%	-10.24%	+30.93%
소재	303.90	-0.53%	-1.95%	+17.91%
산업재	509.49	-0.84%	-3.26%	+12.50%
경기소비재	905.55	+1.94%	+7.21%	+28.06%
필수소비재	612.90	+0.80%	+3.45%	+7.73%
헬스케어	1,150.15	+2.20%	+4.57%	+18.12%
금융	352.99	-1.73%	-4.37%	+11.67%
IT	1,549.67	+1.24%	+3.38%	+19.65%
커뮤니케이션	162.39	+0.43%	+3.39%	+13.84%
유틸리티	297.96	+0.07%	+0.89%	+7.50%
부동산	207.72	-0.59%	-0.95%	+15.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길리어드 치료제 효과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54%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7.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 증시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거나 기대되는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과 온라인 기반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으나, 실적이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신용 리스크 우려가 높은 에너지, 금융, 항공, 호텔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 재개 등을 이유로 저점 대비 30~40%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상승을 지속하기 보다는 종목 위주로 초점을 바꾼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변화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줘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 주목할 부분은 미 증시 마감 후 트럼프가 경제 재개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치료제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경제 재개와 관련 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제기된 이후 관련 종목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시카고 의과 대학에서 렘데스비르 이용한 거의 모든 환자가 일주일 이내 회복이 되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공포 심리를 완화 시킬 수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 후 관련 소식에 힘입어 반등이 예상되며, 특히 코로나 이후 종목군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극심한 위축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661.5만건) 발표치나 예상(600만건)을 하회한 524.5만건을 기록했다. 4주 평균은 550.8만건을 기록했다.

3월 미국 주택 착공건수는 전월(156.4만건)이나 예상(135만건)을 하회한 121.6만건을 기록했으며 착공허가 건수는 전월(145.2만건)을 하회한 135.3만건을 기록했다.

4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12.7)이나 예상(-30.0)을 하회한 -56.6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15.5→-70.9), 재고지수(1.7→-10.2) 등 모든 항목이 둔화되었다. 필라델피아 연은은 이에 대해 제조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20 달러 하회 지속

국제유가는 소비 둔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20 달러를 하회했다. 전일 국제에너지 기구가 하루 소비량이 2,900 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OPEC 은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하루 2천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여전히 공급 감소 보다 수요 감소폭이 크다는 점은 유가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 향후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낙폭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달러화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달러화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물론 미국의 경제 재개 기대 또한 강세 요인 중의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비롯해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 출발 했으나, 경제 재개 기대에 힘입어 단기물이 상승하는 등 혼조 마감했다.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 되는 등 안전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장기물은 하락을 지속했다. 특히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전례 없는 충격으로 경제가 혼란스럽다고 주장한 점도 영향을 줬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 금속도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정책에 기대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9.87	0.00	-20.81	Dollar Index	100.094	+0.64	+0.58
브렌트유	27.82	+0.47	-15.29	EUR/USD	1.0833	-0.71	-0.89
금	1,731.70	-0.49	+2.81	USD/JPY	107.82	+0.34	-0.62
은	15.766	+0.72	+3.26	GBP/USD	1.2447	-0.57	-0.09
알루미늄	1,512.50	+0.33	+2.37	USD/CHF	0.9701	+0.57	+0.41
전기동	5,140.00	+0.56	+1.98	AUD/USD	0.6305	-0.22	-0.55
아연	1,938.00	+0.36	+0.73	USD/CAD	1.4123	+0.06	+1.05
옥수수	326.25	-0.15	-2.76	USD/BRL	5.2538	+0.28	+2.57
밀	530.50	-1.85	-3.28	USD/CNH	7.0908	+0.28	+0.44
대두	845.75	-0.70	-1.86	USD/KRW	1228.70	+0.94	+0.64
커피	119.70	-1.24	-0.99	USD/KRW NDF1M	1227.80	+0.35	+1.4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17	-1.43	-10.18	스페인	0.827	-3.10	+5.00
한국	1.420	-4.20	-9.40	포르투갈	0.956	-1.50	+5.80
일본	0.017	+0.30	0.00	그리스	2.103	+6.30	+33.50
독일	-0.474	-0.90	-12.70	이탈리아	1.830	-5.10	+24.20